

Power Interview

# 발전회사협력본부 박종훈 본부장



## 박종훈

- ▲1980년 서울대 지질학과 졸업
- ▲1979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 ▲1995년 연료처 자원개발부장
- ▲1996년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장
- ▲2006년 한국서부발전 청송건설처장, 발전처장, 본사 기획처장
- ▲2011년 발전회사 협력본부장

## ■ 지방화시대 부응 가교역할 수행 ■

“전력인의 한 사람이자 초대 협력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특성화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종의 서비스센터 역할, 변화된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전략적 역할,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가교역할 수행을 협력본부의 사명으로 각인하고, 정부, 한전, 발전회사, 노동조합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라는 영업마인드로 능동적인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뒤 늦은 축하인사에 대한 박종훈 초대 협력본부장의 답변 일성(一聲)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의욕적으로 출범한 발전회사협력본부가 설립된 지 7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협력본부는 발전 5사의 연료·자재구매, 해외사업, 노사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실효적인 협력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 발전5사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발전 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기여 ■

### 협력본부 현황 및 운영방침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발전방안에 따라 금년 1월 1일 협력본부가 발족하였고 발전회사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전력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협력본부는 이같이 변화된 여건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방침을 ‘고객가치 극대화’로 정했습니다. 협력본부의 고객은 발전회사, 한전, 정부는 물론이고 노동조합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행동 지침이 바로 4C입니다. 4C란 협력(Cooperation),



공조(Coordination), 상생(Compromise), 소통(Communication)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은 발전사 간 협력으로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를 의미하고, 공조는 정부·발전사·노동조합 등 상호간의 조율에 대한 협력본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생은 대화와 화합을 통한 상생적인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협력·조율·상생에 필요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그 일환으로 협력본부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고, 정보제공 차원의 뉴스레터 발송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협력본부 조직(업무) 소개 및 미션

발전회사 협력본부의 조직은 노사업무실과 협력총괄팀(연료자재팀, 법무기획팀, 노사교섭팀) 등 1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본부장인 저를 포함하여 20명입니다. 노사업무실장을 비롯하여 처장급이 3명, 부장급 2명, 차장급 12명 등 발전회사에서 파견된 간부사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즉 산별노조와 발전5사 간 1노 5사 체제에서 운영되어 오던 노사업무 본부의 업무를 승계하는 한편, 새로이 발전회사 간의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발전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미션으로 삼아 협력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선도적 역할 수행

### 2011년도 최대역점 업무가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오랫동안 노사 간 갈등요인이었던 단체협약을 사실상 최초의 자율교섭에 의해 타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임금협약을 진행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임금협약을 마무리하여 발전5사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장형 공기업 지정 초년도인 올해 발전5사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효과 창출에 최대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 협력본부의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기업별 노조설립에 따른 발전5사의 효율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력본부는 그동안 발전회사 분사 이후 축적된 노사관계 업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발전사별 적절한 전략 및 대응책을 수립하고 타임오프, 복수노조 시행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선진 노사관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협력본부 출범 이후, 효율성 제고 등 대표성과가 있다면

먼저 발전5사가 각 사별로 운영하던 정비예비품 중 호환성이 있는 부품에 대해 통합정수를 축소 책정하고, 상반기 중 25개 주요 품목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구매비용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긴급고장에 의한 정비부품 부족 시 발전사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5회에 걸쳐 4개 품목을 상호 용통함으로써 상반기에 약 440억 원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운영 품목의 추가 발굴 및 확대 운영으로 공동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호주 퀸즈랜드 지역의 폭우로 유연탄 수급 차질이 금년도 1월에도 발생하였습니다. 협력본부에서는 발전회사의 공동 대응을 위하여 유연탄 안정적 재고 확보차원의 1일 유연탄 재고일수를 모니터링 하였고, 발전회사 간에는 자율적으로 유연탄 물량교환을 시행하였고, 유연탄 선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체선료 절감을 위하여 선박물량 교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금년도 상반기 유연탄 물량교환의 실적으로,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하여 총 12회 94만 톤의 물량교환이 있었고, 그 결과 약 141억 원의 가격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선료 절감을 위하여 4회 32만 톤의 선박물량 교환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약 4.8억 원의 체선료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협력본부에서는 유연탄 수급위기 시 발전회사와 협력본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탄 수급 위기대응 공동매뉴얼'을 7월에 제정하였고, 발전회사 전체의 유연탄 수급 및 선적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연탄 선적 및 재고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6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 3월 17일 2년 7개월간 끌어오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도 협력본부 출범이후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의 자율타결로, 단협 해지에 따른 노사갈등을 해소한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 5사별로 신설된 기업별 노조 단협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미래 지향적 선진 노사관계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정부의 수출산업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협의회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발전5사 해외사업협의회 및 사장단회의 운영 등 발전 5사간 업무공조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전회사들의 RPS 대응전략 공조현황 및 이에 따른 협력본부 역할은

현재 신재생, 온실가스 등 기후 환경 분야의 공동대응은 발전5사와 민간 발전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대책반에서 맡고 있습니다. 협력본부는 발전산업대책반과 업무공조를 통하여 발전회사의 RPS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협력본부 주관으로 발전5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배출권거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본부 협력총괄팀장이 '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올해 시행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제도이해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장인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으로서 발전5사와 포스코,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의 경영진과 함께 정부의 녹색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발전 5사의 경영효율성 진작 등 상호 공조방안 증대 및 주요 협력 업무는

발전5사의 자율 및 책임경영이라는 구조개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경쟁보다는 통합관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업무는 ▲유연탄 안정적인 재고 유지를 위한 발전회사 간 물량교환 ▲운송비 및 체선료 절감을 위한 장기전용선 선박 운영 협력 ▲발전자재의 재고정보 공유 및 예비품의 상호유통 ▲해외사업과 해외자원개발의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한 협력 ▲발전회사 간 건설인력 등 인력교류 ▲노사관련 법무 및 노무관리 종합대응 ▲노조와 단체 협약 및 임금협약 관련 업무 ▲발전회사 사장단회의 운영 ▲기타 발전회사의 경영자율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전회사 사장단이 인정한 업무 등이 있습니다.

### 협력본부의 향후 역할확대 필요성 및 전망

올해는 협력본부 발족 초년도로서 현재 노사업무를 포함하여 연료자재, 해외사업,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발전5사간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공조라는 일면 상반된 면이 있으므로 발전5사의 공동사안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업무협의 및 조정창구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와 발전5사에서 볼 때 필요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회사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2013년 이후에는 협력본부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협력본부의 경우,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향후 발전사의 업무영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RPS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새로운 규제도입 시 발전5사의 이견을 조율하는 등 실무분야 외의 정책적 차원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EA